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 예배 중에 참빛찬양대 임명식이 있습니다.

11시 예배 후 2월 정기임원회가 교육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부활절에 세례·입교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하시고 예비교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유아세례교육은 4월 5일(토) 오후 2시, 성인세례교육은 오후 3시, 성인입교교육은 4월 12일(토) 오후 3시 사랑방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농도생협에서 친환경 황토농장의 부활절 유정란을 예약주문 받습니다. 유정란 30알 10,000원 구운 유정란 30알 13,000원입니다.

지난 주일 송임회 집사님께서 별세하셔서 장례를 엄수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사순절 달력'의 실천사항을 힘써 지킵니다.

출 17:1~7 / 시 95
롬 5:1~11 / 요 4:5~42

느 6:8~14

오늘 식당 봉사 : 찬양대
다음 주 식당봉사 : 정경례 배삼순 김미현 김진선 권현숙 구성실 김재환
오늘설거지봉사 : 찬양대
다음주설거지봉사 : 3남선교회
식사 및 커피 대접: 김인걸 문영혜 (故 송임회 집사님 장례)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제 밤보다는 낮의 길이가 길어지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빛이신 주님, 우리 삶 가운데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에 어둡고 그늘진 곳보다는 밝고 환한 곳이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빛이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어둠의 행실을 버리고 빛의 자녀들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총을 온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롭게 피어나는 꽃송이, 부드러운 봄바람, 따스한 봄볕 하나하나가 은혜입니다. 주님, 우리가 근심과 걱정에만 골몰하지 말고 주님께서 선물처럼 베풀어주시는 많은 은혜들을 만끽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인식 김정숙 광상준 최경미 구명자 김경혜 김근종 정옥영 김문주
 김신실 김영순 김용진 박효선 김윤수 김주영 김준호 광혜자 김중현
 성귀옥 김지호 전해리 박상옥 박영희 변재민 이소혜 성지현 오자영
 윤수진 윤정덕 구성실 이광석 이경희 이광용 형인순 이봉옥 이순용
 이우상 이계월 이재문 이재훈 이정은 이주영 오재영 이준림 이증자
 김창경 이지훈 이진영 한양미 이현순 임호성 장동훈 정은선 정선희
 정완수 감재광 정우선 조관행 홍선희 조병주 조현권 박아영 주경진
 이윤정 추현영 한성건 정지혜 허준호 홍복선 홍순구 안홍숙

감사헌금

고은숙 민석준 김진중 김흥기 박병구 박은경 박혜경 변재민 이소혜
 신진식 변혜정 오진훈 노순옥 윤세현 은종인 이광재 이진영 한양미
 임서영 전인섭 최희정 한미영 무명13

생일감사헌금

윤영미 하미림 무명

녹색꿈헌금

김재환 김진선 박호규 강영님 이재문 무명1

백혜숙	박성희	박성희	백혜숙
신진식	최경미	차혜심	서원금
장영숙	신영신	박정숙	최종미
노순옥	진정숙	조병주	진정숙
박홍재	박홍재	김윤수	박홍재
권미숙	박미영	정영례	박미영
김금순	김금순	강순배	유영남
곽권희	윤수진	윤미경	이정은
안홍숙	오현정	임영선	이수정
정영선	홍춘숙	김경희	정영선
박혜경	박혜경	이기분	최수화
김재흥	오자영		
김재흥	송형운		
이범석	이진영		
이범석	곽상준		
신진식	윤성		

참빛찬양대

대장: 박성실 총무: 김민화 지휘자: 안홍숙 반주자: 김수진

소프라노

고숙이 문복순 박성실 박옥식 배삼순 안정숙 유경순 정복순 정영선
조순덕 진정숙 박혜경

메조

김민화 김희우

알토

권미숙 김진경 문금석 박미영 박영희 백혜숙 유영남 이봉옥 이소순
이재문 이현순 임창선 조병주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우리의 앓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교만치 않도록 주의하며 사십시오. 늘 모름의 여지를 인정하며 겸손하게 사십시오. 오로지 주님께서 맡기신 선한 일에 힘쓰며 사십시오.

아멘. 그릇되고 편협한 지식에 사로잡혀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과 모름을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장로 :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오진훈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설교 : 김기석 목사	오편기 / 김기석 목사 기도 : 최경미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홍 목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김인걸 장로	최희영 선생 김정민 권사

3월	영접위원	박홍재 박병구 김정민 고숙이 이해령 정연희
	헌금위원	윤석철 정영선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믿음으로 읽는 글

그것 하나면 충분하지 않을까?

조이홈스(케냐에 있는 한 고아원) 10주년을 축하하러 한국팀이 또 하나의 행사로 ‘마을 체육대회’를 준비해왔다. 우리는 한국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돕겠다고 하면서 함께할 수 있는 것을 구상했다.

“체육대회 때 물려올 아이들을 위한 일들을 준비해볼게요.”

“한국에서 풍선을 준비해왔어요. 그걸로 강아지나 칼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페이스페인팅 물감과 매니큐어도 가지고 왔어요. 아, 비눗방울도 조금 가지고 왔어요.”

“오, 그럼 우리는 어른들을 위한 게임을 준비해볼게요.”

비록 한국에서 온 사람들과는 처음 만난 어색한 사이였지만, ‘조이홈스를 위한 일’이라는 같은 마음으로 함께한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었다.

... 희과 조은이는 페이스페인팅을, 니콜은 매니큐어를 그리고 까만땅콩은 풍선아트를 맡아 아이들 줄을 세우기 시작했다. 평소엔 그저 허허벌판에 학교 하나 고아원 하나 세워져 있고, 집이 드문드문 있을 뿐이었는데 도대체 이 많은 아이들은 어디서 뿜하고 나타난 것일까. 그날 아이들은 300명이 넘게 왔고, 끝없이 줄을 섰으며, 오전 9시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아이들의 얼굴과 손에 그림을 그려넣고 풍선을 만들었지만, 결국 아이들 모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진 못했다.

까만 아이들에게 진한 원색과 강렬한 형광색은 참 잘 어울렸다. 우리는 작은 일이지만 감사 인사를 하는 법을 가르쳐주었고, 아이들은 수줍게 “아싸때(고마워)”하면 “까리부 싸나(천만에)”로 답해주었다. 우리가 아이들을 맡아 정신없이 일하는 동안, 운동장에서는 하하호호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워낙 뛰어놀기 좋아하는 아프리카인들은 긴 팔다리를 이용해 줄넘기도 폴짝폴짝, 계수도 경충경충, 물만난 물고기처럼 신나게 대회를 즐기고 있었다.

... 운동회의 마지막은 축구로 장식하게 되었는데, 출전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결국 숫자를 제한하지 못하고 운동장

엔 거의 70명쯤 되는 사람들이 네 팀으로 나누어 축구공 두 개로 막축구를 하게 되었다. 사실 그냥 ‘개판’ 축구였지만, 세상에서 가장 재미난 경기가 아니었나 싶다.

케냐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축구공을 찰 땀 반드시 신발을 벗는다. 변변한 축구화는커녕 신발도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었기에, 운동장엔 먼지가 뽀얗게 묻은 슬리퍼를 신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신발은 사실 케냐 사람들에게겐 여전히 익숙지 않은 거라 그런지 오히려 축구나 운동할 땀 맨발인 경우가 꽤나 많았다. 나는 맨발로 걷기도 힘든데 말이다. 신발을 신고서도 공이 앞으로 오면 뛰다가 신발을 탁 벗으며 공을 찬다. 엄청난 순발력을 필요로 하는 행동이라 무척 신기한 광경이었다.

나무 기둥으로 세워진, 세상에서 가장 멋진 골대에 그야말로 허허벌판인 운동장에 공 하나만 있으면 지치지 않고 달리는 까만 사람들. 사람들은 아무도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키며 경기에 집중했고, 나도 아직 이 룰을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결승전까지 두 팀이 올라오게 되었다. 그러나 아빨싸, 어느덧 해가 누엣누엣 지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이곳에 땅거미가 내리기 시작했다. 혼한 가로등 불빛도 없는 데다 가뜩이나 피부가 검어 사람들이 하나둘 보이지 않기 시작했다. 결국 결승전은 기약 없이 미뤄졌다.

이곳 사람들은 약속을 해놓고도 일이 생기면 지키지 않는다. 내일 와달라고 하면 알겠다고 해놓고선 일주일 뒤에 어슬렁어슬렁 오기도 한다. 결승전은 다음 주 토요일로 정해졌지만, 그날 운동장은 텅 비어 있었다. 결국 축구 결승전을 치르지 못한 까닭에 네 마을의 1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한국팀에서 준비한 상품들은 공평하게 나눠 가졌다. 품에 가득 선물을 안고 돌아가는 그들의 입가에 오늘 하루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처음 이곳에 올 때 우리가 정했던 목표가 생각났다.

“우리가 그곳에서 큰일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 거창한 목표 잡지 말고 그냥... 그냥... 그 사람들이 평생 웃을 시간이 우리로 인해 10분만 더 연장되길 원하는 마음. 그것 하나면 충분하지 않을까?” ...